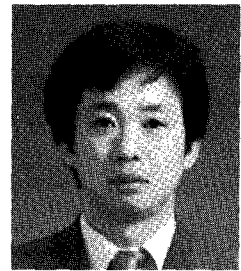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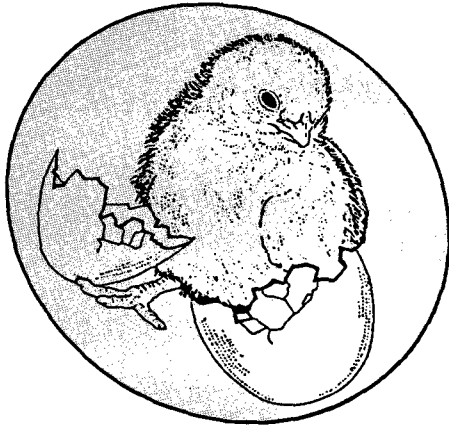


채란계 산란피크유지를 위한 사양관리



이 인 구
천광산업(주) 사료사업부

채란계가 일생동안 보다 많은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내에 계군의 산란율을 높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육성계의 사양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산에서 산란피크까지의 사양관리가 계군의 산란성적을 결정지을 것이다.

육성시 사양관리 미흡으로 체중의 균일도가 불균형한 계군은 성계가 되어서 환경과 영양을 아무리 잘 맞추어 준다고 해도 높은 산란율을 기대할 수 없으며, 초산에서 산란피크에 이르는 기간에 어떤 요인이든 산란정체가 일어나면 계군의 산란성적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산란피크 유지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계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중추 구입

현실적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인력난, 부지 구입난, 시설유지비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이나 경제적 측면으로 중추를 구입하여 대추 육성후 산란을 시작하면 최고의 산란 성적을 추구할 수 있다.

혹, 현장에서의 주먹구구시 중추 구입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책임있고, 믿을 수 있는 공급자로 부터 구입을 하여야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추 구입시 기본 점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사양기록부의 인수시 다음 아래사항을 필히 점검하여야 한다.

- * 품종, 부화일자
- * 백신종류와 접종시기 기록 상태
- * 사료급여량과 체중 기록상태
- * 질병경력과 투약 여부

2) 중추의 점검

- * 외모가 깨끗하고 활력이 있는지의 여부
- * 부리모양과 다리 이상 유무
- * 질병증상과 외상 유무
- * 급여사료 및 품질 정도
- * 체중의 균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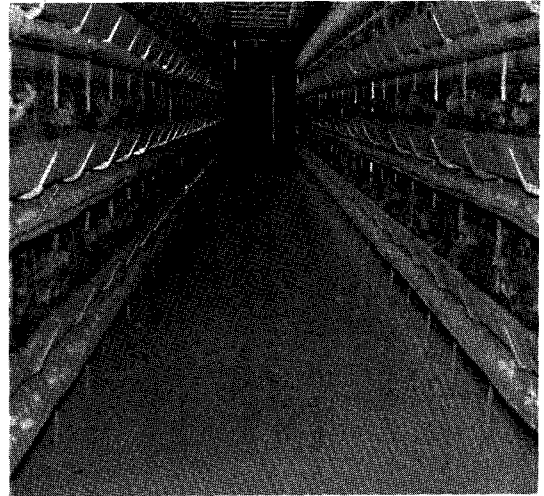
2. 육성계의 사양관리

체중관리에서 실패한 계군에서는 우수한 산란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계군의 산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군의 균일한 육성이 필요하다. 균일하게 육성된 계군은 초산일령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며 초산에서 산란 피크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짧고 피크 산란율이 높으며 산란을 지속성이 좋다. 결과적으로 산란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계군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중 체중관리와 백신접종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체중관리

체중관리는 품종별, 종계, 부화장별로 만들어져 입추시 배부받고 있는 사양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이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부화장, 사료회사, 수의사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순발력 있게 적



응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양기록부상의 체중유지에 주안점을 두는것 보다 전체계군의 균일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1) 체중 측정 방법

- * 매주 주기적으로 실시
- * 계사내 각 위치별로 고르게 무작위로 선정
- * 측정 시간 일정

이렇게 측정된 체중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바로 계군의 사료급여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료 급여 방법

- * 표준체중의 경우는 사양기록부 상의 기준 급여량 제공.
- * 표준체중보다 미달할 경우는 중추사료의 지속적인 급여와 기준 급여량보다 약간 증량하거나 무제한 급여.
- * 질병, 백신접종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있을 경우 3일정도 무제한 급여.
- * 표준 체중보다 초과할 경우는 급여량 자체를 증량하지 말것.

이러한 노력은 닭이 초산시에 평균체중에 도달하고 계군 전체의 표준체중 비중이 80%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백신접종

백신접종이란 어떤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는 뜻이다.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양계용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산란계에서의 백신접종은 아주 중요한 방역관리의 하나이며,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방어하여 최고의 산란성적을 얻기 위함이다.

산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ND, IB, EDS, AE, MD 등이 있다.

특히, 중추 입추시에는 입추전까지의 백신접종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추 구입시에는 정확히 기록된 사양기록부의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 초산에서 산란 피크까지의 사양관리

산란 특성상 초산에서 산란피크까지 이르는 기간은 계군이 목표한 대로 목표 산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산란 전기간중 계군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즉 계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란 정체의 여러가지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산란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는

* 육성의 잘못으로 계군의 체중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산란을 시작했을 경우.

*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 ND, IB와 같은 산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1) 체중의 불균일도에서 오는 산란정체

첫째 원인으로 질병감염을 들 수 있는데 육성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군의 균일성은 일시에 떨어질 것이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MG)에 오염된 상황에서 대장균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2차감염되면 호흡기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어 식욕도 떨어져 균일도가 낮은 계군이 된다.

이런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생추에서 성계 편입시까지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하여야 하며 주위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IB와 같은 경우는 감염후에 난소가 파괴되어 그 기능이 호전되지 않아 질병 회복후에도 산란성적이 저조한 것을 보아왔다.

또한 면역 체계와 관련된 감보로와 마렉의 백신접종은 2차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실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원인으로 닭의 선택채식습관을 들수 있다.

닭이 선택채식함으로써 개체간의 섭취가 달라져 계군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바 하루에 한시간 정도는 모이통에 사료가 없도록 섭취량을 조정하고 사료 저어주기를 가능한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세번째 원인으로 닭은 투쟁심이 심한 동물이므로 산란계사로 수용할때 가능한한 체중이 비슷한 개체끼리 모으고 체중이 적은 개체들은 케이지 상단으로 보내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환경의 급변화로 인한 산란의 정체

환절기 갑작스런 더위 등의 온도변화, 사료 공급의 중단, 단수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산란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벌크빈 속에 사료가 얼마나 있는지, 물은 원활히 나오고 있는지, 전구는 청소가 되어있는지, 커튼 또는 창이 개폐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일일 기본점검 사항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3) 질병 발생으로 인한 산란정체

난소에 손상을 입는 호흡기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산을 하기 전까지 백신접종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4. 산란피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사양 관리

산란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하강속도가 일정하므로 산란피크 높이에 따라 전체의 산란성적

이 결정된다. 만약 산란피크때의 산란율이 낮을 경우에는 신속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환기, 점등, 급수시설과 사료섭취량을 점검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질병으로 인하여 산란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찰을 해야한다.

산란피크를 높게 올려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온도, 습도 및 환기상태의 수시점검으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

둘째 햇닭이 물과 사료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셋째 초산계는 생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절대 놀라지 않게 할 것.

넷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주지 말 것.

다섯째 산란율이 올라가는 중에는 절대로 백신접종을 하지 말 것.

여섯째 산란개시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하여 생리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산란피크의 계군에 항변력을 높여 줄 것.

일곱번째 효과적인 점등관리를 위하여 전구에 먼지가 붙어 광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와같이 균일하게 잘 육성된 계군이 산란중간에 정체현상 없이 유지되어 준다면 그 계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에서 산란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산란피크를 높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농장에서는 한정된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초산에서 산란피크까지를 철저히 관리하여 산란정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영 74